



미국산업보건학술회의를 대녀와서 American Occupational Health Conference 2000



전 경 자
(순천향대학 간호학과 교수)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Future is Now"라는 주제로 미국산업보건학술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는 미국산업간호협회와 미국산업환경의학협회가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써 3일간의 학술논문 발표와 학술회 전 후에 이어지는 연수교육 및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산업보건 및 간호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필자는 본 학술회에서 "Influencing Factors on Job Role Quality in Korean Employed Women"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논문을 포스터로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학술회 참석을 통해, 필자는 1998년 11월, 영국에서 영국 RCN과 미국산업간호협회가 공동주최한 학술회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산업

간호가 전세계적으로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미국산업간호의 규모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3일간에 걸쳐 짜여진 다양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미국 전역으로부터 모여든 산업간호사들은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연수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연수교육의 범주를 임상실무, 대체의학, 사례관리 및 작업복귀, 인간공학 및 근골격계질환의 사정 및 치료, 직업 및 환경보건과 안전, 산업보건에 있어서 규정·윤리·법적 측면, 조직적 성공의 전략, 건강증진, 초보자를 위한 정보활용, 전문간호사의 업무개발 등 10개로 구분하여 하루에 약 30개씩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각 강좌는 3시간 또는 6시간을 단위로 짜여져 있었다. 필자는 "Planning a

Successful Health Fair”, “Quality Assurance in Occupational Health Nursing”의 2개 강좌를 수강하였다. 이들 연수강좌를 이끈 강사들이 대부분 경험이 많은 산업전문간호사들이었고, 일방적 강의식에서 벗어나 수강생들의 참여와 토의를 이끄는 진행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소개하므로써 수강생들과 실제적인 토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들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강생들이 강의를 마친 그 즉시 강사와 강의내용, 강의진행방법, 학습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제출해야만 교육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이였다. 한국에서의 산업간호사 보수교육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보았다는 느낌이다.

학술대회가 시작되는 첫날 오전은 참석한 간호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연이 있었다. 특별강연의 강사는 간호사면서 교육학박사, 철학박사인 Tim Porter O’Grady였는데 그는 지난 30년간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동해왔고, 보건의료기관의 조직개혁, 갈등, 변화조정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적 자문회사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으며 수편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였다. 따라서, 특별강연의 내용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가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였다. 산업간호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특별강연의 연자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간호사들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였다. 이 강사의 또 다른 강점은 수천명의 간호사들이 짝 들어찬 대규모 홀에서 4개의 커다란 모니터로 동시에 진행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주 간호사들의 폭소를 터뜨릴만큼 유머와 재치를 능숙하게 발휘하므로써 아주 쉽게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특별강연에 이어서 개최된 미국산업간호협회 총회는 말그대로 AAOHN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 자체였다. 각 주별로 참석자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서 호명할 때마다 각기 다양한 함성과 제스처어로 지부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럽기 그지 없었다.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가 특히 더 많은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그 세를 과시하였다. 오후에 이어진 포스터세션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수평점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총 12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었는데, 한 참가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업자세에 대한 비디오까지 동원하여 생생하게 연구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가 제작한 포스터에 대해 간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인으로써 워싱턴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교포를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뻐다.

포스터세션이 열리는 동안, 동시에 개최된 산업보건 기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되였다. 백여개의 업체와 대학들이 자신들의 상품과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참석한 간호사들에게 정보와 견본품을 제공하였다. 건강 및 산업보건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업



미국산업간호협회장 Dibenedetto와 함께

체, 약물중독진단용 기기를 개발한 업체, 응급 처치용 물품을 개발한 업체,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을 개발한 제약업체, 인간공학적 원리를 이용한 작업도구 및 개인보호구를 개발한 업체 등등 다양한 업체들이 수많은 상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미시간대학교 등을 위시한 교육기관들이 자신들의 석사 학위과정이나 단기연수과정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교육에 대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미국산업간호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간한 책자와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미국산업전문간호사 시험위원회에서도 부스를 개설하였다. 마침, 필자가 미국전문산업간호사시험위원회 부스에 방문했을 때 미국산업간호협회장인 DiBenedetto여사를 만날 수 있어서 간략히 한국에서의 산업간호현황을 소개하였고, 한국간호사들이 미국산업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는 호의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참고로 미국산업전문간호

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미국 RN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전시된 상품과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들은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둘러보고, 홍보자료를 모아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정보가 마련되어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진국의 간호수준을 경험할 때 느끼는 양가감정을 이번에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적어도, 우리의 10년 이상 정도 앞선 미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수준이 한편으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극과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Future is Now"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현실에서 미리 가 본 미래를 어떻게 앞당겨 실현할 것인가를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굳은 결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2001년도 AOHC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www.aaohn.org를 참고하기 바란다.)

